

十九世紀의 圖書館史資料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十四)

朴 熙 永

目 次	
第一節 機關과 施設	1) 奎章閣
1) 校書館	2) 人事
2) 成均館導經閣	第三節 鑄字所
3) 承文院	第四節 實錄
4) 藏譜閣	1) 春秋館
5) 宮內各藏書處	2) 實錄
一奉漢堂, 宙合樓	3) 承政院日記
望廟樓, 華寧殿	4) 史庫
文獻閣, 內閣	第五節 圖書의 撰修 및 刊行
玉堂, 春坊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藏書閣, 西庫一	1) 淸
6) 造紙署	2) 歐美
7) 書院	第七節 藏書家
8) 奎章閣	第八節 新文化
第二節 奎章閣	

本號는 李朝時代의 第7期가 된다. 李朝時代를 8期로 劃하고져 하였으나 近代의 人 意味에서의 圖書館史의 起點을 現釜山市立圖書館이 設立되어서부터로 한다던 不得已 李朝가 完全히 끝나는 純宗 4年 (1910)以前인 1901년부터 始作해야 하므로 本來의 計劃을 變更하여 이번 號로서 李朝時代를 끝마추고져 한다.

第7期는 純祖로부터 憲宗, 哲宗, 高宗까지의 1801년부터 1901년까지를 劃하였으니 完全히 19世紀가 된다.

鎖國政策은 더욱 굳어갔고 굳어 갈수록 西學, 西敎에 對한 迫害는 甚해 갔다. 한

편 民族의 自覺과 思想의인 改革運動으로 西學에 對한 東學이 이터났으나 이도 또한 大彈壓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西勢 東侵은 줄기차게 繼續되어 英國人, 美國人, 獨逸人, 佛國人, 露國人, 日本人等等이 連이어 軍艦으로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接近하여 왔다. 大院君은 執權하자 四色黨派에 拘礙치 않고 人材를 登用하고 社會的 階級을 無視하는 人材의 登用과 黨爭의 基地가 되어 왔던 書院을 撤廢하는 果敢한 政治를 하는 한편 景福宮을 再建하여 王室의 權威를 갖추었으나 丙寅洋擾, 辛未洋擾등을 겨른後 大院君이 물러

가고 閔氏 一派가 世道를 잡게 되자 日本 軍艦 雲揚號事件으로 因하여 丙子條約인 江華島條約을 締結하면서부터 日本과 正式 外交關係가 맺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鎖國韓國은 門戶를 開放하게 되어 美國, 英國, 獨國, 露國, 伊國, 佛國 등의 나라와 계속해서 通商條約을 締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外國의 新文化가 輸入하게 되었으며 開花運動이 이려났다. 그러나 壬午 軍亂과 甲申政變, 東學亂, 甲午更張 등을 거쳐 開花는 하여 갔으나 日本의 侵略은 더욱 強하여져서 及其也는 合邦하게 되었다.

第一節 機關과 施設

1) 校書館

校書館은 第1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로서 奎章閣이 創設되면서 부터는 外閣이라 하였는데 外閣以外的 別稱으로 藝閣, 內書, 秘書, 典校 등으로도 불리우고 있었으며 內閣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編纂되는 圖書를 印刷하고 있었다.

純祖即位年(1800) 12月 2일에 命을 받아 兩賢傳心錄을 開印하였는데 正祖가 朱子の 書籍과 宋時烈的 遺集을 抄하여 親히 彙編한 것이다.

第7期中에 있어서의 校書館의 官員을 高宗2年(1865)에 發刊한 大典會通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守藏諸員 44
 粧册諸員 20
 司準 1員 從 8品
 司勘 1員 從 9品
 書吏 16
 治匠 6
 均字匠 40

印出匠 20

刻字匠 14

鑄匠 8

彫刻匠 8

木工 2

紙匠 4

① 純祖實錄 卷1 純祖即位年 12月 庚戌 條

2) 成均館導經閣

成均館의 導經閣에 關하여는 第3期에서 述한바 있다,

高宗 16年(1879) 4月 26日에는 成均館 導經閣에 盜賊이 侵入하여 圖書312冊을 훔쳐 갔다고 하며 高宗 23年(1886) 正月 27日에는 成均館導經閣의 圖書가 많이 散失^②되어 있으므로 成均館 大司成에게 이들을 補充하고 管守를 嚴하게 하도록 命하고 있다.

① 承政院日記 光緒 5年 4月 28日條

② 承政院日記 光緒 .11年 1月 27日條

3) 承文院

承文院에 關하여는 第1期에서 述한 바 있다.

淸이 立國한(1636) 以後 淸으로부터의 誥命勅書는 明時代에 이어서 承文院에 藏하였으나 正祖 23年(1799)에는 禮曹가 奉安閣에 移藏하였다. 그러다가 純祖 32年(1832) 3月 20日 禮曹判書 李止淵의 말에 따라 閣을 承文院에 移建하여 이를 奉安하게 하였다.

① 純祖實錄 卷32 純祖 32年 3月 丁卯條

4) 藏譜閣

藏譜閣은 歷代王의 御眞을 奉藏하던 閣이었는데 高宗 3年(1866) 12月 20日 藏譜閣에 火災가 있어 御眞을 冷泉亭^①에 移奉

하였다고 한다.

① 承政院 改修日記 同治 5年 12月 20日條

5) 宮內各藏書處

室內에는 圖書를 保藏하던 곳이 여러곳 있었다.

純祖 14年(1814) 3月 22日 奎章閣이 印進한 弘齋全書를 奉諫堂, 宙合樓, 望廟樓, 華寧殿, 文獻閣, 奎章閣, 玉堂, 春坊 및 五處史庫에 各各 藏하게 하였고 純祖 14年(1814) 6月 24日에는 奎章閣이 印進한 正宗大王御製列聖御製合附本을 奉諫堂 文獻閣, 五處史庫에 藏하게 하였고 憲宗 2年(1836) 5月 19日에는 奎章閣이 奉印한 純宗, 翼宗御製正書本及合附列聖御製本을 奉諫堂, 文獻閣, 奎章閣, 玉堂, 藏書閣, 西庫, 五處史庫에 奉藏토록 하였다는 以上の 記錄으로 보아 宮內에 藏書하던 곳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純祖實錄 卷17 純祖 14年 3月 癸丑條

② 純祖實錄 卷17 純祖 14年 6月 癸未條

③ 憲宗實錄 卷3 憲宗 2年 5月 辛丑條

6) 造紙署

造紙署는 第 1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로서 製紙를 主管하던 곳이었는데 高宗 19年 12月 29日 官制改正으로 造紙署는 없어지고 代身^① 造紙에 關한 事務가 工曹로 屬하게 되었다.

① 承政院改修日記 光緒 8年 12月 30日

7) 書院

書院은 第3期로부터 繼續되는 私學機關이다. 國家發展을 阻害하고 政治를 어지럽히고 있는 黨爭을 止揚코저 英祖 正祖가 甚히 努力하여 그 結果 奎章閣이 이루어졌다. 所謂 蕩平主義의 政策으로 黨爭을

根絶케는 하지 못하였으나 前과 같이 甚하지는 않게 되었다. 高宗의 代에 드러서 大院君이 執政하였는데 大院君은 戚族世道の 除去, 垂簾攝政의 撤回, 南, 北人의 同時登用, 여러가지 疑獄事件으로 抑鬱하게 處刑 또는 迫害를 當하던 百數十名의 罪人들을 釋放, 四色派閣을 無視한 機會의 均等, 地方別撤廢, 大膽한 班常과 貴賤을 不問한 適材適所主義로서 臨하여 黨爭을 없애는 한편 近代의인 政治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大難陟를 斷行하면서 大院君은 高宗元年(1864) 7월부터 全圖書院을 嚴密히 調査시키는 一方 그 存廢問題를 檢討케 命令한 다음 8월에 가서는 書院, 鄉祠의 弊端이 藉甚하니 摘發 處分하고 私學, 濫設을 嚴禁하도록 指示하였다.

哲宗 13年(1862) 5月 26日에는 各地의 書院中 哲宗元年(1850) 以後에 創建한 其中 賜額書院을 除外하고 모두 撤廢토록 命하였는데 當時의 全國 書院의 數는 650餘個所나 있었다.

高宗 5年(1868) 9月 3日에는 新建立을 不許하였고 高宗 8年(1891) 3月 9日에는 先儒 1人에 對하여 2個以上 疊設된 書院이나 鄉賢祠는 비록 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이를 撤廢케 하였는데 全國에서 殘存할 수 있는 書院은 겨우 47個所에 不過하게 되었다.

震檀學會 編 韓國史 最近世篇 9163~184

① 哲宗實錄 卷14 哲宗 13年 5月丁未條

②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7年 9月 3日條

③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10年 3月 9, 16, 20日條

8) 奎章閣

奎章閣 第2節에서 述한다.

第二節 奎章閣

1) 奎章閣

奎章閣은 第6期로부터 始作된 王宮圖書館이다.

第7期에 있어서 奎章閣의 官員에 關하여 高宗 2年(1865)에 編撰된 大典會通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奎章閣은 從 2 品の 衙門이다.

提學 2員 從 2品至從 1品

直提學 2員 正 3品至從 2品

直閣 1員 從 6品至正 3品

待敎 1員 正 9品至正 7品

判校 1員 正 3品

校理 1員 從 5品

兼校理 1員 從 5品

別坐 從 5品

別提 正, 從, 5品,

博士 正 7品

著作 正 8品

正字 正 9品

副正字 從 9品

書吏 10人

書寫 2人

以上과 같다.

奎章閣出入과 奎章閣의 圖書出納에는 牙牌라는 것이 必要하였다. 牙牌에는 3種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한 面에는 篆로서 奎章閣이라는 3字와 御署가 刻하여 있고 한 面에는 命이란 字가 篆刻되어 있다. 또 하나는 內府書籍命入牌라 篆刻되어 있고 또 하나는 內府書籍請出牌라고 篆刻되어 있다. 이 牙牌는 弘文館에서 書籍 出納에 使用되던 制度를 따른 것이다. 高宗 11年(1874) 正月 29日에는 內閣牙牌를 復舊하

③

였다고 하는바 牙牌制度는 한동안 中止되었던 모양이다. 第7期中 奎章閣이 完成, 印進한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純祖 元年(1801) 10月 3日

關西賓興錄을 印進

純祖 元年(1801) 12月 11日

正祖가 製한 春邸錄 4篇, 詩 3編, 序引 6編, 記 1編, 牌 1編, 誌 1編, 行錄 1編, 行狀 1編, 祭文 7編, 論音 4編, 敎 7編, 敎諭 1編, 諭書 1編, 封書 3編, 批 5編, 判 1編, 策問 5編, 說贊銘合 1編, 雜著 10編, 講義 56編, 鄒書春記 2編, 魯論夏箋 4編, 曾傳秋錄 1編, 類義評例 2編, 故寔 6編, 審理錄 26編, 日得錄 16編, 群書標記 6編, 合 184編을 完粧하여 100을 進獻

純祖 2年(1802) 5月 30日

正祖御完大學類義 10册, 周公書 4册, 苑陵史補 3册, 軍旅大成 3册, 宋史筌 61册, 朱書分類 6册, 左傳彙類 4册을 進

純祖 3年(1803) 5月 13日

景慕宮睿製繕字本 7卷을 進

純祖 5年(1805) 9月 19日

正祖御製大學類義를 印進

純祖 5年(1805) 11月 27日

正祖誌狀을 進

純祖 6年(1806) 9月 27日

御製詩文雜著 2卷을 進

純祖 8年(1808) 8月 5日

御製景春殿記를 進

純祖 9年(1809) 3月 22日

惠慶宮進表裏, 進餼儀軌을 進

純祖 14年(1814) 3月 22日

正祖御製弘齋全書 100册, 景慕宮睿製 3册을 印進

純祖 14年(1814) 6月 24日

正祖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本 22冊을
印進

憲宗 2年(1836) 5月 19日

純宗御製正書本 10冊, 翼宗御製正書
本 6冊, 純宗, 翼宗御製合附列聖御製
本 12冊及 別印純宗製 8冊 翼宗御製
5冊을 奉印하다.

憲宗 3年(1837) 8月 27日

列聖誌狀通紀合附本, 元陵誌狀續編,
健陵誌狀續編, 仁陵誌狀, 綏陵誌狀 合
하여 4冊을 印進

高宗 2年(1865) 4月 22日

哲宗御製正書本 3冊 列聖御製合附本
3冊을 奉印

高宗 2年(1865) 7月 18日

列聖誌狀通紀合附, 三陵睿陵誌狀 合
冊을 印進

高宗 31年 6월에 官制를 改革하였을 때
奎章閣은 宮內府에 屬하게 되었다.

①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7 奎章閣
條

② 上 同

③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13年 正月 29日
條

④ 震檀學會 韓國史年表 p. 306
靑柳南冥 李朝 5百年史 p. 464

2) 人 事

第7期中에 있어서 奎章閣의 提學, 直提
學, 直閣을 歷한 사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提學) 南公徹, 徐榮輔, 沈象秀, 朴宗慶,
李晚秀, 沈象奎, 金履喬, 朴宗薰, 趙寅
永, 徐有槩, 朴綺壽, 金興根, 朴永元,
趙秉鉉, 金左根, 趙斗淳, 金洙根, 金炳冀,

尹定鉉, 金炳國, 南秉哲, 金輔根, 鄭基
世, 金學性.

(直提學) 尹行愆, 南公徹, 李治源, 金根
淳, 朴宗慶, 李存秀, 洪奭周, 朴宗薰,
李龍秀, 李鶴秀, 朴綺壽, 趙寅永, 金鑑
鄭元容, 徐憲淳, 林永元, 金興根, 趙秉
龜, 金輔根, 金學性, 金大根, 趙秉駿,
金炳冀, 鄭基世, 南秉哲, 金炳國, 曹錫
雨, 李公翼, 金炳德, 金炳地, 李埈, 李
裕元, 金輔鉉.

(直閣) 朴宗慶, 李存秀, 金邁淳, 洪奭周,
朴宗薰, 徐俊輔, 李光文, 鄭元容, 鄭基
善, 李嘉惠, 徐萬淳, 吳取善, 李公翼,
鄭秉朝, 金炳韶, 金左根, 徐有哲, 金始
淵, 趙然興, 金德根, 鄭健朝, 申錫禧,
李九翼, 李承五.

第三節 鑄字所

鑄字所는 第1期로부터 繼續되는 機關이
다.

哲宗 8年(1857) 10月 15日 밤에 賓殿部
監假家에서 失火하여 宣仁門及 東北所部
將廳, 衛將所 등과 아울러 鑄字所의 大廳
과 板堂까지 合하여 62間이 延燒하여 鑄
字所의 活字中 正祖때 鑄字한 活字는 勿
論 太宗, 世宗때 鑄字한 것도 재로 되고
마랐다. 그리하여 남은 것의 數 175,698
個가 있었는데 哲宗 9年(1858) 正月 20日
右議政 趙斗淳의 啓言에 依하여 金炳冀,
尹定鉉, 金炳國을 鑄字所 主管堂上으로 하
고 速히 鑄字할 것을 命하여 哲宗 9年(18
58) 9月 18日 活字의 鑄字가 끝났다. 새
로 鑄字한 活字는 整理大字 89,203이고 小
字가 39,416이며 韓構字가 31,829이어서
合하여 160,448字를 鑄字하였는데 타고 남

은 活字 175,698字를 合하면 336,146字가 된다. ④

- ① 哲宗實錄 9卷 哲宗 8年 10月 壬戌條
- ② 承政院改修日記 咸豐 7年 11月 20日條
- ③ 承政院日記 咸豐 8年 正月 20, 21日條
- ④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校書館條

第四節 實 錄

1) 春秋館

春秋館은 第1期로부터 繼續되는 機關이다.

春秋館의 實錄도 史庫의 實錄과 같이 曝曬를 하고 있었음을 承政院日記 嘉慶 6年 9月 25日字로 알 수가 있다.

2) 實 錄

第7期는 純祖로부터 高宗까지의 4代를 劃하였으며 第7期中에 이룩된 實錄은 純祖前代인 正祖부터의 實錄이 이루어 졌다.

正祖實錄은 純祖 即位年(1800) 12月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純祖 5年(1805) 8月 2日에 54卷이 完成하였다.

① 純祖 實錄은 憲宗元年(1835) 5月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憲宗 4年(1838) 閏4月 13日에 34卷이 完成하였다.

② 憲宗 實錄은 哲宗 即位年(1849) 11月 15日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哲宗 2年(1865) 8月 4日에 16卷이 完成하였다.

哲宗實錄은 高宗 元年(1864) 4月 29日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高宗 2年(1865) 閏5月 13日 15卷이 完成하였다.

高宗 2年(1865) 閏5月 13日 哲宗實錄이 完成하였을 때 純祖實錄의 附錄과 哲宗實

錄의 附錄이 同時에 이룩하였다.

純祖 11年(1811) 閏 3月 6日 香室과 藝文館이 火災로 燒失될 때 藝文館에 奉해 있던 列朝實錄 72櫃中 66櫃가 燒燼되었다.

- ① 純祖實錄 卷7 純祖 5年 8月 壬午條
- ② 憲宗實錄 卷5 憲宗 4年 閏4月 甲申, 甲午條

③ 承政院日記 同治 4年 閏5月 16日條

④ 上 同

⑤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閏3月 甲申條

⑥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凡例

純祖實錄 〃

憲宗實錄 〃

哲宗實錄 〃

3) 承政院日記

承政院日記는 承政院의 日記이다. 李朝後期研究의 根本史料로서는 實錄以上の 價値가 있다고 한다. 元來는 李朝初期 以來의 日記가 있었으나 壬辰倭亂의 兵火에 罹災되어 燒失되었다.

純祖 33年(1833) 7月 10日에는 正祖 51年(1786) 6月 純祖 2年(1802) 2月과 12月의 合하여 3卷이 紛失되었고 純祖 34年(1834) 6月 5日에는 다시 4卷을 紛失하였는데 高宗 11年(1874) 2月 5日 之間 紛失되었던 18冊의 修正을 끝내고 이의 散逸錯誤漏落이 없도록 注意하다가 高宗 25年(1888) 3月 8日 右史堂 堂後에서 火災가 있었을 때 東庫以外에 所藏되었던 承政院日記 300餘卷이 燒燼되어 春桂坊所在의 正書朝報와 內閣日省錄에 依하여 이를 補修토록 하여 高宗 27年(1890) 12月 15日 361卷의 改修를 끝내었다. ⑤

- ① 承政院日記 道光 13年 7月 10日
- ② 承政院日記 道光 14年 6月 5日
- ③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12年 2月 5日
- ④ 承政院日記 光緒 14年 3月 8日
- ⑤ 承政院日記 光緒 16年 2月 15日

4) 史 庫

純祖 3年(1803) 閏2月 5日에는 五臺, 赤裳兩史庫의 實錄을 이해 ^① 봄과 여름사이에 擇日하여 曝曬토록 命하였는데 五臺山史庫는 19年間 赤裳山史庫는 14年間을 曝曬를 舉行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純祖 7年(1807) 9月 11日 春秋館에 權安하여 둔 正祖實錄을 ^② 速히 擇日하여 赤裳山史庫에 奉安할 것을 命하면서 赤裳山史庫의 實錄을 曝曬할 것을 命하였다.

憲宗 12年(1846) 7月 15日 鼎足山과 五臺山史庫가 曝曬例年이어서 擇日舉行토록 하였는데 高宗 5年(1868) 正月 25日 四處의 史庫를 5년에 한번씩 曝曬토록 定하였다.

第7期中에서 여러 史庫를 改修하고 있는데 純祖 17年(1817) 3月 6日 赤裳山으로부터 도라온 鄭基善이 赤裳山史庫는 다른 史庫와 달라 齋室이 甚히 狹窄하고 移安廳이 別設되어 있지 않아 每 曝曬時마다 安國寺에서 이를 行하고 있었는데 僭徒들이 散하고 安國寺는 院廊이 頽破되어 數年內에 全傾할 念慮가 있으니 安國寺는 寺刹이 지만 公廡이어서 이를 修理하고 僭徒도 優待할 것을 啓하여 이대로 따랐다고 한다.

純祖 20年 2月 29日에는 太白山史庫를 ^③ 改修케 하였다.

- ① 承政院日記 嘉慶 8年 閏2月 5日
- ② 承政院日記 嘉慶 12年 9月 11日

- ③ 承政院日記 道光 26年 7月 15日
- ④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7年 1月 25日
- ⑤ 承政院日記 嘉慶 22年 3月 6日
- ⑥ 承政院日記 嘉慶 25年 2月 29日

圖書의 撰修 및 刊行

第7期中에 있어서 撰修 및 刊行된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純祖 元年(1801)

四部手圈을 刊印

華城城役儀軌를 刊印

純祖 2年(1802)

增正交隣志 撰輯

純祖 4年(1804)

先朝御定大學類義의 刊印을 命

純祖 5年(1805)

正宗誌狀을 新印

純祖 7年(1807)

朴奎淳 莊陵誌續編을 撰進

純祖 8年(1808)

七書俱解, 皇極經世書는 大邱에서

周禮는 高靈에서

文公家禮는 興陽, 星州에서

近思錄은 潭陽, 禮山에서

近思錄釋疑는 江陵, 海州에서

朱子大全, 中庸或問, 心經釋義綱目은

全州에서

心經은 星州에서

禮記易學啓蒙은 南原에서

朱書節要是 錦山, 禮安에서

理學通錄은 禮安에서

退溪言行錄은 安東에서

濂洛風雅는 泰仁에서

各各 印出을 命

純祖 9年(1809)

明律의 刊板印出을 命

純祖 10年(1810)

李祉永 五禮通編草本 16冊을 進
 純祖 13年(1813)
 正宗大王御製를 印進
 純祖 16年(1816)
 禮記, 周易, 退溪集의 活字印本을 命
 純祖 18年(1818)
 同文彙考의 校正을 完
 書雲觀志 4編을 彙成
 純祖 19年(1819)
 儀禮摠覽을 印進
 純祖 21年(1821)
 明律, 大典通編, 無冤錄의 印出을 命
 純祖 25年(1825)
 松溪集을 重刊
 純祖 26年(1826)
 尊周彙編을 纂集
 純祖 28年(1828)
 進爵整禮儀軌를 刊印
 憲宗 7年(1841)
 同文彙考 印役을 完
 憲宗 8年(1842)
 通文館志를 續輯
 千才曆을 刊進
 小華外史를 完
 憲宗 10年(1844)
 東國史略을 新刊
 哲宗 2年(1851)
 同文庫略 編印을 完
 哲宗 3年(1852)
 文苑繡敵綴編이록
 哲宗 6年(1855)
 兩賢傳心錄을 刊行
 哲宗 7年(1856)
 通文館志綴編이록
 哲宗 10年(1859)
 大明律, 大典通編, 無冤錄等 17件의

印出을 命
 國語의 新印이록
 哲宗 11年(1860)
 五倫行實重刊이록
 哲宗 12年
 金正浩 大東輿地圖를 校刊
 哲宗 14年
 金正浩 大東地志 32卷을 著
 高宗 1年(1864)
 同文彙考의 續刊이록
 交隣志厚編을 增補印行
 高宗 2年(1865)
 大典餘通이록
 兩銓便攷이록
 高宗 3年(1866)
 三班禮式이록
 高宗 4年(1867)
 六典條例를 刊印
 高宗 5年(1868)
 五禮便考이록
 高宗 7年(1870)
 弘文館志이록
 高宗 10年(1873)
 紀年兒覽의 續輯을 命
 五永便考圖說 5卷 草本이록
 高宗 12年(1875)
 通文館志 續編이록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1) 淸

第7期中 淸과의 關係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純祖 8年(1808) 3月 26日
 吏曹判書 南公轍의 啓에 依하던 淸에
 다녀오는 使節들이 冊을 사오는 것을 禁
 止하되 經書, 史書, 先輩醇儒文等은 許可

하자고 하였다.

純祖 30年(1830) 4月 17日

皇明實錄을 散奉閣에 奉安케 하였는데 皇明實錄은 中國에 갔던 使節이 사온 것으로 2825卷 461册이다.

純祖 34年(1834) 7月 29日

譯院官生 崔昌淳이 阮元皇清經解 183部 1400卷 360册을 사올 것을 請하였다.

2) 歐 美

高宗 2年(1865) 8月 20日 字 承政院改修日記에 보면 이보다 前에 浚州府 紫羅里 近浦에 唐船一隻이 왔는데 그안에 洋人이 自己는 英國사람이라 하면서 邪書와 曆書를 두고 갔다하며 高宗 3年(1866) 9月 8日^① 佛國兵이 江華島에 武力上陸하여 20數日을 있을 때 여러 物件과 많은 圖書를 鹵獲하여 갔다고 한다.

① 日省錄 李太王 丙寅年(1866) 9月 9日에 보면 佛國兵이 江華府城을 占領하여 20數日을 駐留하고 있었는데 城中 長寧殿 其他 官衙等에 衝火하고 軍器器械와 儲留 稅穀, 天銀書冊 等を 많이 鹵獲하여 왔다 고 한다.

第七節 藏書家

沈象奎는 字를 釋教라 하고 斗室 또는 彝下라고 號하였다. 靑松사람으로 禮曹參判贈議政府領議政 沈念祖의 아들이다. 英祖 42年(1766)에 誕生하여 正祖 13年(1789) 文科에 登第하여 처음 人閣하였는데 文藝를 잘하여 正祖의 眷顧를 받았다. 純祖 25年(1825) 右議政으로 純祖 34年(1834) 領議政에 올랐다. 純祖가 昇遐하자 院相으로 承政院에 있었으며 憲宗 1年(1835)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沈象奎는 三朝에 歷任하여 功이 많았으며 純宗實錄의 撰修를 總裁하였고 萬機要

覽卷을 撰進하였는데 讀書를 즐겼으며 그의 藏書는 많기로 國內에서 으뜸이었다고 하는 大藏書家이었다.

第八節 新文化

高宗 19年(1882) 8月 23日 忠州壯 幼學 池錫永(學者며 名醫로서 牛痘法을 배워다가 이를 國內에 實施하여 많은 生命을 救한 功이 크고 또 高宗에 上疏하여 國漢文을 兼用케 하는데도 功이 크다)이 開花論을 上疏하였는데 여기서 外國人이 著述한 萬國公法, 朝鮮策略, 普法戰記, 博物新論, 格物人門, 格致彙編 等の 圖書와 當時의 國內人士인 金玉均의 箕祖近事, 朴泳教의 地球圖經, 安宗洙譯인 農政新編, 金景遂의 公報抄略 等を 發行하자고 하였다. 高宗 32年(1895) 12月에는 兪吉濬의 西遊見聞이 出版되었고 建陽 1年(1896) 1月에 法規類編이 刊行되었고 光武 1年(1897) 1月은 이 봉운의 國문정리가 刊行되었다.

새로운 文化의 導入으로 新聞이 發行하게 되었는데 第1 처음의 新聞은 高宗 20年(1883) 10月 1日 漢城旬報第1號가 發刊되었는데 이것이 發刊되기 前인 同年 8月에 博文局이 設置되어 閔泳穆, 金晚植을 堂上으로 하고 日本人 井上角五郎의 힘을 빌려 每月 3回 發行하게 되었다. 內容은 官報를 主로 하여 各國新聞과 古今圖書에 依하여 天下의 形勢와 學術等的 論說로서 編輯하다가 高宗 22年(1885)에 論說關係로 發行이 中止되었다. 建陽 1年(1896) 4月 獨立新聞이 徐載弼의 主管으로 發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民間新聞의 첫 것이 되고 이어서 光武 2年(1898) 9月에는 皇城新聞이 發行되었다.

遂次刊行書로서는 獨立協會月報가 처음인데 建陽 1年(1896) 12月이었다.